

가정폭력과 자아문화가 특성불안에 미치는 영향^{*} - 도시지역 남편폭력에 의한 피해주부를 중심으로 -

손현숙

영남이공대학 아동복지과

The Effect of Spousal Abuse by Husbands on Self-differentiation and Trait-anxiety Levels of Urban Housewives^{*}

Son, Hyun Sook

Dept. of Child Welfare, Yeungnam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Daegu,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studying contemporary family violence, and to examine self-differentiation and trait-anxiety levels of urban-area housewives. The 207 subjects were married and living in urban areas. The statistical analyses used for this data were frequency, percentile, ANOVA, correlation, and multiple-regression. The main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Period of the family violence is 6-10 years, the main forms of violent behavior are kicking and punching, and the most violently abused wives want to divorce their husbands. 2) The self-differentiation level is 2.78, the verbal violence level is 2.06, the physical violence level is 2.06, and the trait-anxiety level is 2.49. 3) The degree of self-differentiation differed according to level of wife's education, husband's education, type of residence, income, wife's occupation, and husband's occupation. 4) The degree of violence differed according to level of wife's education, husband's education, type of residence, income, wife's occupation, and husband's occupation. 5) The degree of trait-anxiety differed according to level of husband's education, income, wife's occupation, and husband's occupation. 6) Wife's occupation, intellectual function vs. emotional function, family projection, verbal aggression behavior influenced on trait-anxiety.

Key words: self-differentiation, husband's violence, urban area housewives,
verbal violence behavior, physical violence behavior, trait-anxiety

접수일: 2003년 5월 15일 채택일: 2004년 1월 15일

* 본 연구실적물은 2003학년도 영남이공대학 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한 것임

Corresponding Author: Son, Hyun Sook Tel: 82-53-650-9362

Fax: 82-53-625-4704 E-mail: hson@ync.ac.kr

I. 서 론

오늘날 소리없는 전쟁이라 일컬어지는 가정폭력은 단순히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국가적인 차원의 개입이 시급할 정도로 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2003년 겨울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유명 방송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가정폭력을 집안일이라 생각하고 은폐하려는 태도로 인하여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 사건의 피해당사자 “Y씨” 경우도 결혼 초기부터 있어왔던 폭력을 시간이 지나면 이런 행동이 사라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더 큰 화를 불러 일으켰으며,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전통적인 우리사회의 가정은 사랑과 조화의 장이자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이나 폭력을 비정상적이고 반사회적인 현상으로 보는 기능론적 가족 이데올로기가 팽배하여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행위 자체가 알려지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왔다. 예전부터 한국의 가족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가정의 특성은 직계가족을 이상형으로 하여 남편이 높은 지위의 가부장권을 가지는 불평등한 지위관계를 형성하였다. 하지만 도시 산업사회는 가정의 모습까지도 바꾸어 놓았는데 특히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전환되었으며, 이웃공동체가 붕괴되어 가정은 더욱 고립되게 되었다. 그러므로 가정폭력을 가족생활에서 당연히 발생될 수 있는 사건으로 보는 갈등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가정폭력이 단순히 가정만의 사적 문제나 불평등한 관계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가정 폭력에 관한 심각성을 알리는 실태파악과 가정폭력을 유발하는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로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심리학적 접근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IMF라는 사회적 위기와 고도의 정보산업화에 따른 대량실업과 같은 사회적 문제는 국가, 사회 뿐 아니라 가정 역시 피해갈 수 없는 위기상황이 되었으며, 이러한 위기는 가정에도 심리적인 불안과 스트레스를 야기시키며, 가정 내에서는 폭력으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여성부의 조사보고(2002)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도 남편의 70%가 결혼이후 한번이상의 아내 구타 경험이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부부 중 34.1%가 1년에 적어도 한차례 이상의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감안할 때 경제적·사회적 위기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오늘날에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더욱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가정폭력의 피해여성의 특징 중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상당수의 피해여성이 어린 시절 역시 폭력적인 가정환경 아래에서 자랐다는 점이다. 이를 “폭력의 연속성”이라 하는데 가부장적이며, 지배적 가정환경에서 권위를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폭력을 행사한 가정에서 자란 이들이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자신을 더욱 더 자기학대적이며 비이성적이게 되어 냉철하고 지적인 판단이 흐려지게 된다. 또 자신의 부모관계나 자신과 배우자와의 관계를 반복해서 생각하므로 불안과 정서적 감정적 융합의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러한 불안과 지적 체계와 정서적 체계의 융합관계의 정도와 적응에 관한 이론은 Bowen(1978)의 자아분화에 입각한 것이다.

자아분화(Differentiation of self)란 한 개인이 지닌 심리적 특성으로 인간은 지적 체계와 정서적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적 체계의 기능과 정서적 체계의 기능이 분리된 정도를 의미한다. 즉 지적 체계의 기능과 정서적 체계의 기능간에 구분이 잘 된 사람으로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진 사람은 긴장상태에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며 생활에 질서가 있다. 그러나 문화정도가 낮은 사람은 감정에 의존하며 적응력과 융통성이 부족하여 생활 속에서 문제를 쉽게 일으키게 된다. 이는 부부갈등과 폭력의 상황에서도 적용되는데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의 긴장이 고조되어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면서 폭력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면, 문화수준이 낮은 여성의 경우는 융통성을 상실하여 대처를 잘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무력감을 느끼고 쉽게 불안상태로 접어들게 된다. 인간의 삶에 있어 불안은 피할 수 없는 심리적 상태이기는 하지만 심각한 상황에 이르면 생존을 위협하는 심리적인 불유쾌한 정서로 작용하며 자존심을 훼손하여 삶을 황

폐화시킨다. Spielberger(1966)에 의하면 불안은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광범위한 자극상황을 위험한 것이나 위협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성향이 개인에 따라 느끼는 강도의 차이로 그러한 위협에 대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될 수 있지만 특성불안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상황을 위험하거나 위협된 것으로 지각하거나 이 상황에서 상태불안의 강도를 높여서 반응하고 인지하려는 경향으로 비교적 쉽게 변화되지 않는 행동성향이므로 과거에 나타났던 상태불안 빈도나 강도, 미래에 대한 예측에 있어 개인차를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owen의 가족체계 이론을 바탕으로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아분화정도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특성불안의 정도를 살펴보자 한다. 이를 토대로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아상태 및 심리적 특성인 불안상태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여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도와 줄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학대상황 및 실태를 살펴본다.

연구문제 2.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자아분화, 가정폭력정도, 특성불안의 정도를 살펴본다.

연구문제 3.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사회환경 변인에 따른 자아분화와 가정폭력정도, 특성불안의 차이를 살펴본다.

연구문제 4. 개인적인 특성, 자아분화 수준, 가정폭력정도가 특성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어떤지를 살펴본다.

II. 선행연구 고찰

1. 도시지역의 가정폭력의 현황과 원인

가정폭력은 ‘가정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항에 의해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

의된다. 여기서 가정구성원은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관계였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부인에 대한 남편의 폭력은 연구자들간에 완전히 합의된 용어는 없지만 아내구타, 아동학대, 아내폭행, 배우자학대, 매맞는 아내 등으로 불려진다. 또 폭력의 범위에서 O' Brien은 ‘상대방에게 신체적으로 위협하거나 부상을 일으키는 행위’라 하였고 Gelles & Straus(1979)는 ‘타인을 신체적으로 해칠 의도로 써 수행한 행위와 그러한 의도를 가졌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Warner & Brain(1982)은 ‘규범적, 법적 한계를 초월하여 가정구성원간에 상해를 입히는 육체적 완력’으로 정의하였다. 한국가정의 가정폭력 중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의 실태를 살펴보면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결혼기간 동안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여성은 45.8%, 심한 폭력의 경우도 9.1%로 나타났다. 최근의 연구 중에서 김재엽(1998)은 전국적인 규모로 가정폭력의 실태를 조사(전국, 1500명 대상)하였는데, 지난 1년 간 남편의 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27.9% 심각한 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7.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편에 의한 폭력이 신체적 공격에만 국한되는 것 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주는 언어적 폭력의 심각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Infante(1989)에 의하면 언어적 폭력이란 언어적 공격으로서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고통을 가하는 시도로 정의되며, 이러한 정의는 신체적 공격이 상대방에게 신체적인 고통과 피해를 가하고자 하는 시도로서의 행동(Gelles · Straus, 1990)으로 정의 내린 것과 비교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Gelles과 Straus(1979)가 지적하였듯이 실제의 폭력행위의 비율은 조사에 나타난 수치보다 적어도 2배 이상 되리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가부장적인 지배문화가 잔존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가정폭력은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폭력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심각해진다. 한국여성의 전화가 1993년부터 1994

년까지 2년 간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보면 목을 조르거나 닥치는 대로 때리거나(37.5%), 가두어 놓고 옷을 벗기고 때리고(7.07%) 칼이나 흉기를 사용하거나 담뱃불로 지지는 경우(15.9%)까지 대단히 심각한 수위까지 가정폭력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정춘숙, 1998). 대개 첫 번째 폭력은 절반 이상의 경우 따귀를 맞은 것으로 시작하였으나 점차 폭력의 강도가 심해지고 폭력이 흉악해지고 폭력후의 성관계 등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여성이 임신한 상태 혹은 병든 상태에서도 발생하기도 한다(김혜선 1995; 형사정책연구원 1992).

가정폭력의 원인을 설명하는 관련 변인으로는 크게 개인내적인 원인으로 정신병리와 성격장애론과 가부장제도에 의한 왜곡된 가족관계에 의한 이론, 사회학습이론, 스트레스에 의한 이론 등이 있다. 가정폭력은 어느 한 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기보다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발생한다.

첫째, 정신병리 및 성격장애이론에 의하면 가정폭력이 처음 사회에 노출된 경로는 폭력의 희생자들이 정신과적 휴유증 문제를 치료하러 병원에 왔을 때 이들을 진료한 의사들이 정신적 증상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폭행의 피해흔적이 함께 있음을 발견하고 그 폭력의 진상을 폭로한 것에서 비롯하였다. 아내를 폭력하는 남편 70명에게서 정신분열증, 편집증, 인격장애 등의 정신병이 발견되었다(김광일 1992)는 임상보고가 정신병리 이론을 지지한다.

둘째, 가정폭력이 오랫동안 가정 안에 익숙되어 올 수 있었던 이유 중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왜곡된 가족제도의 하나인 가부장제도를 든다. 가부장제도는 남성이 여성에 대하여 우월적 권위와 지배권을 가진다는 사상이 그 핵심내용으로 여성의 남성에게 종속적 관계에 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지배-종속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성역할이 규범화되고 고정되어야 했다. 부부관계에서도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칠거지역의 규율과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삼종지도의 예법이 생활화되어 여성들은 일생 지배당하는 처지에서 살아야 했다. 이러한 관습

은 훈육과 사랑이라는 미명아래 가정 내 폭력이 허용되는 태도를 형성하였다.

셋째, 사회학습이론에서는 개인이 폭력을 사용하게 되는 행위를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한다. 우선, 폭력행위에 노출되어 모방함으로써 폭력학습의 과정을 습득한다는 측면, 그 다음 폭력에 대한 노출정도와 경험정도가 폭력을 수락하는 규준을 학습하게 한다는 측면, 마지막으로 역할모델의 접근으로 경험한 역할모델 내에서 폭력을 관찰함으로써 학습되어진다고 하는 측면이다.

넷째, 스트레스는 가족 내에서 폭력을 일으키는 주요한 요소의 하나로(박경규 1994; Straus et al. 1980) 스트레스로서 인지된 생활사건을 해결 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부족할 때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폭력을 사용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가해자가 갈등, 실직, 고립, 원치 않는 임신, 저소득 등의 스트레스에 취약하여 폭력을 사용한다고 본다.

다섯째, 교환 이론 (Exchange theory)은 배우자 간에 교환의 관계가 실패했을 때 폭력이 일어나는 것으로 본다. 권위 또는 힘이 더 있는 사람이 적절한 보상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지위에 위협을 받는다고 느끼면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 폭력의 결과가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많다면 폭력은 줄어들겠지만 손해보다 보상이 많을 때는 계속 폭력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자원 이론 (Resource theory)는 경제적, 교육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이 필요한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여섯째, 통합이론은 사회정책적으로 사회통제의 수준을 강화하여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통제로 인하여 폭력의 위험성이 더 심각해 질 수 있는 가정이나 개인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Gelles 1998).

이와 같이 배우자에 의해 발생되는 폭력은 심각한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인간 관계적 문제를 유발하며, 폭력피해자에게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결과는 우울증, 신체적 허약함, 불안과 분노, 자존감의 상실로 이어지며 심지어는 자살적 충동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원인은 미숙한 자아문화의 결과이기도 하다.

2. 자아분화

자아분화는 Bowen의 가족체계 이론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개념이다. 역동적인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상호간의 지원을 나타내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자아분화란 한 개인이 지난 심리적 특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인간은 지적 체계와 정서적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적 체계는 확고한 신념, 의견, 생활신조 등으로 이루어진 진아(眞我 : solid-self : 자신의 신념이나 생활원리로 구성 된 자아)를 말하며, 정서적 체계란 정서적 압박에 의해 형성되고 수정되는 가아(假我 : pseudo-self)를 말하는 것으로 자아분화(Differentiation of self)는 지적 체계의 기능과 정서적 체계의 기능이 분리된 정도를 의미한다. 즉 지적 체계의 기능과 정서적 체계의 기능간에 구분이 잘 된 사람, 즉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진 사람은 긴장상태에서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며 생활에 질서가 있다. 그러나 분화정도가 낮은 사람은 감정에 의존하며 적응력과 융통성이 부족하여 생활 속에서 문제를 쉽게 일으키게 된다. 왜냐하면 분화되지 못하고 융합(fusion)되어 버림으로서 융통성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분화정도는 정신병리나 스트레스 폭력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다고 하더라도 분화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사람은 신체적, 사회적 스트레스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만성화되기 쉬우며, 분화수준이 너무 높은 사람 역시 환경으로부터 스트레스를 계속 받을 경우 지성과 정서의 분화를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 그 결과 부적응을 나타낸다. 자아분화의 또 다른 측면은 개인의 현재의 지적체계와 정서적 체계의 분리정도인 자아분화 수준 뿐 아니라 개인의 자아분화에 미치는 가족역동성 즉 가족투사과정,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까지 측정할 수 있어 한 개인이 소속된 가족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과 더불어 가족체계이론의 구조를 잘 반영해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아분화는 개인의 삶에 질을 결정할 뿐 아니라 부부관계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가정폭력에 관한 개인적 상황을 올바르게 지각하고 가정폭력부부의 적응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유용한 지표라 사료된다.

3. 특성불안

불안은 매우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개념으로 일반적인 불안의 의미는 “일정한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일종의 공포나 심리적인 불편함과 같은 개인에게 존재하는 부정적인 정서”라 정의할 수 있다. Spielberger(1972)는 불안을 지속적인 성격 특질로서의 불안과 유동하는 정서상태로서의 불안으로 구분하였다. 특성불안은 불안경향에 있어 비교적 변화하지 않는 개인차를 지닌 성격특성으로, 평범위한 자극상황을 위험한 것이나 위협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성향이 개인에 따라 다르며 그러한 위협에 대해 상태불안 역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과거에 나타났던 상태불안빈도나 강도 및 미래에 그러한 상태를 겪게 될 확률에 있어 개인차를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특성불인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더 많은 상황에서 위험성이나 위협을 느끼고 위협적인 상황에서 더 강한 상태불안을 일으키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 가족체계이론에서 기능의 수준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의한 두 개의 주요한 변수 중의 하나가 자아분화라면 그 나머지 변수는 특성불안이다. 특히 앞서 살펴보았듯이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역기능적인 폭력 행동이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으며, 결과로써 긴장과 융합이 빈번히 나타나며, 이로 인해 불안이 야기됨을 알 수 있다.

4. 가정폭력과 자아분화 및 특성불안과의 관계

부부의 자아분화와 부부갈등, 가정폭력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아직도 많이 미흡하고 관련된 연구자료는 주로 부부갈등에 따른 연구자료에만 국한된 실정이다. 자아분화와 갈등과의 연구에서 Kear(1978)는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관계가 원만하고 부부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부부간의 갈등이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Nelson(1987)은 자아분화 정도가 높을수록 내적 통제가 잘 되고 자아분화정도가 높을수록 갈등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금온순(1996)

의 연구에서도 자아분화 정도가 높을수록 부부갈등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부갈등에 따른 심리적인 고통은 아내가 남편보다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자아분화 정도와 부부적응 및 결혼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은 자아분화정도가 높을수록 부부관계가 원만하고 부부간의 적응이 잘되어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분화 정도가 낮을수록 결혼생활에서 갈등 및 역기능적인 행동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전준애, 1994; 고현선, 1994). 최근에 나온 이현주(1996)의 연구에서 자아분화에 따른 갈등해결방법은 남편의 경우는 자아분화의 정도에 따라 외부도움 요청과 신앙에 의지하는 방안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성적 대처와 회피 그리고 행동표출은 자아분화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분화 정도가 높을수록 이성적 대처를 많이 하고 회피와 폭력행동의 표출은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경우에도 자아분화가 높을수록 외부의 도움요청, 신앙의 의지, 회피 돌출 행동을 적게 하고 이성적인 대처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과 대처방안 및 행동표출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Lazarus(1976)는 45~64세의 남녀 성인 100명을 대상으로 대처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연구에서 개인이 처한 상황, 상황에 대한 평가, 연령, 성별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개인이 처한 상황과 상황에 대한 평가에 따른 대처행동의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대처방식에서는 문제 중심적 대처와 정서중심적 대처가 상당한 정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eigal(1985)은 자아분화수준과 Wallar(1951)의 '부부적응검사'로 측정한 부부간의 적응도를 비교하였는데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발견하였다. 자아분화수준이 낮은 사람끼리 결혼하면 가족구성원들 각자의 자아가 융합되어 미분화된 가족자아를 형성하기 쉽다. 이런 경우 부부갈등이 야기되며 한 배우자에게 있어 역기능이 발생하여 자기들의 문제를 자녀에게 잠재적으로 투사하기 쉽다(Bowen 1976; Kerr 1988). 즉 공동자아(common self)를 형성하여 정서적 평형이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친밀한 기간과 정

서적 거리를 느끼는 기간이 교차되다가 정서적 이론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하였다(Bowen 1978). 이것이 미분화된 두 배우자가 겪는 갈등관계이며 이 갈등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한 사람은 지배적 입장을 취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복종적 입장을 취하므로 인해 복종적 배우자는 지배자에게 의존하여 의사결정 책임과 자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게 되고 스트레스에 봉착하면 종속적인 배우자는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역기능을 발생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상기 연구 결과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환경에 효율적으로 적응하여 건강한 생활을 하지만 자아분화수준이 낮을수록 환경에 효율적으로 적응하지 못해 부부간에 더 많은 갈등을 지각하고 이성적 대처와 같은 건설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기보다는 회피나 행동 및 감정표출과 같은 역기능적인 행동들이 표출됨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방법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자아분화 및 특성불안의 상태와 가정폭력의 피해실태를 측정하기 위해 표집대상을 선정하여 설문조사(survey research)를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선정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고루 분포되도록 도시 주부를 대상으로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하여 실시하였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선정은 대구·경북의 중소도시, 부산 및 경남 창원, 대전의 가정폭력 쉼터에 일시 거주하는 주부들과 전국 각지의 여성교육센터의 수강생 중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리하여 총 400부의 설문지 중 가정폭력 경험이 있고 검사문항에 성의 있게 응답한 자료 총 207부를 본논문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척도는 가정폭력실태(갈등책략척도), 자아분화, 특성불안척도이며 측정도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Table 1. The general tendency of the subjects

일반 사항	구 분	N	일반 사항	구 분	N
부인 연령	만 20~29	14(6.8%)	부인 학력	중졸이하	45(21.7%)
	만 30~39	99(47.8%)		고졸	112(54.1%)
	만 40~49	72(34.8%)		전문대졸이상	50(24.1%)
	만 50 이상	22(10.6%)			
남편 연령	만 20~29	2(1.0%)	남편 학력	중졸이하	38(18.4%)
	만 30~39	59(28.5%)		고졸	96(46.4%)
	만 40~49	108(52.2%)		전문대졸이상	72(34.8%)
	만 50 이상	38(18.4%)			
결혼 상태	초혼	183(88.4%)	부인 직업	무직(전업주부)	134(64.7%)
	재혼	18(8.7%)		농업, 노무직	38(18.4%)
	동거 및 사실혼	3(1.4%)		판매직, 서비스업	20(9.7%)
	기타	2(1.0%)		사무직, 전문직이상	15(7.2%)
거주 형태	자가	109(53.1%)	남편 직업	무직	53(25.6%)
	전세	63(29.9%)		농업, 노무직	45(21.7%)
	월세	18(8.7%)		판매직, 서비스업	48(23.2%)
	기타	14(6.8%)		사무직, 전문직이상	52(25.1%)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50(24.2%)	가족 형태	핵가족	169(81.6%)
	101~200만원	100(48.3%)		시부모님과 동거	32(15.5%)
	201만원 이상	57(27.5%)		친정부모와 동거	6(2.9%)

1) 자아분화 척도(Differentiation of Self Scale : DOSS)

자아분화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Bowen의 이론에 입각하여 Kearn(1976), Garfinkle(1980)의 척도를 바탕으로 제석봉(1989)이 개발한 자아분화 척도 36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문항은 4 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전체점수가 높으면 자아분화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1, 2, 4, 5, 6, 11, 12, 14, 15, 16, 17, 18, 19, 21, 22, 23, 24, 33, 35, 36문항은 역산하였다. 자아분화 정도는 Bowen의 중심적인 개념으로서 지성이 정서에 분화된 정도를 가리킨다. 자아분화 정도는 Bowen의 중심적인 개념으로서 지성이 정서에 분화된 정도를 가리키며, 5개의 하위요인인 가족퇴행, 가족투사과정, 정서적 단절,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자아통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별로 살펴보면 가족퇴행은 16문항($\alpha=.86$)으로 구성되며, 가족구성원이 위기나 갈등을 대처해 나가는 행동양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족투사과정은 7 문항으로($\alpha=.82$) 부부의 자아가 분화되지 못한 경우 부부간의 갈등, 긴장 등을 특정 자녀에게 투

시한다는 것이다. 정서적 단절은 4문항으로($\alpha=.67$) 자아분화가 낮은 사람이 예전의 미해결 된 정서적 애착으로 인하여 자신의 과거로부터 단절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지적 기능 대 지적 기능은 5문항($\alpha=.74$)으로 지적 체계가 얼마나 분리되어 기능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아의 통합은 6문항($\alpha=.68$)으로 대인관계에서 자아의 성숙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위에서 정서적 압력을 받을 때 얼마나 자신의 신념과 생활원리를 잘 견지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하위요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퇴행, 가족투사과정, 정서적 단절,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이 높음을 의미하며 자아분화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실시된 자아분화 문항의 전체 신뢰계수는 $\alpha=.89$ 로 나타났다.

2) 가정폭력 척도(갈등책략 척도- CTS : Conflict Tactics Scale)

가정폭력의 실태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Straus의 갈등책략척도(CTS : Conflict Tactics Scale)를 사용하였다. CTS는 총 18문항으로, 3개의 하위척도, 즉 논의(Reasoning : 3문항), 언어적

폭력(Verval aggression : 7문항), 신체적 폭력(Physical aggression : 8문항)을 포함되어 있다. 이 척도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오래 전에 검증되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아내학대를 측정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논의란 이성적인 논의, 논리적 사고 등 지적인 방법에 의한 해결 방법이며, 언어적 공격이란 언행으로 혐오감, 적대감, 모욕감, 협박 등을 표현하여 상징적으로 상대에게 폭력을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신체적인 피해를 주는 해결방법이며, 신체적인 피해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폭력으로 규정할 수 없는 논의행동(reasoning) 3문항을 제외시킨 총 15문항에 대해 지난 1년 간 일어난 각 행동의 횟수로 “결코 그런 적이 없다(0점),” 1년에 1~2회(1점), “1달에 1~2회(2점)” “1주에 1~2회(3점)” “거의 매일(4점)”의 범주에 걸쳐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요인분석을 토대로 ‘언어적 공격(문항1-7), 신체적 공격(문항 8-15)으로 구분하여 해당하는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였다. 가정폭력의 정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심한 것으로 총득점의 범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60점까지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CTS 전체 신뢰도는 $\alpha=.97$ 이었고 언어적 공격에 관한 신뢰도는 $\alpha=.95$ 이었으며, 신체적 폭력에 관한 $\alpha=.94$ 로 높게 나타났다.

3) 특성불안 척도(Trait-Anxiety Scale)

특성불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Spielberger (1977)에 의해 제작된 STAI(State-Trait Anxiety Inventory) Form Y-2를 연구목적에 맞게 번안하여 특성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특성불안 척도는 김정택(1978)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불안의 문제로 상담이나 지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불안을 측정할 때, 그 유용함이 밝혀졌으며 처음으로 국내에서 표준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적 장애가 없는 정상인의 신경증적 불안을 측정하는 자기보고형 척도로 실시하였다. 이 척도는 20개의 문항으로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1, 3, 6, 7, 10, 13, 14, 16, 19문항은 역산하여 처리하였다. 각 문항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조금 그렇다’는 3점, ‘아주 그렇다’는 4점으로 채점하였다. 이 척도는 전체점수가 높을수록 특

성불안 경향이 높음을 뜻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는 역시 $\alpha=.85$ 로 나타났다.

3.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10.0 for Window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가정폭력의 현황파악은 Frequency를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자아분화와 특성불안 및 가정폭력 정도를 묻는 질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 계수를 이용하였다. 자아분화와 특성불안은 평균 값을 이용하였다. 사회환경변인에 따른 자아분화와 특성불안, 가정폭력의 차이는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이용하였다. 상관관계와 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특성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학대상황 및 실태

가정폭력의 상황요인 및 실태를 보면 우선 폭력기간을 살펴보면 6~10년 동안 이 16.4%로 많이 나타났으며,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폭력을 당하는 여성들도 상당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폭력의 행위로는 발로 차거나 주먹을 휘두르고 실신할 정도로 때리는 행위가 2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율로는 가장 낮은 17.4%를 차지하지만 흡기로 위협하는 행위나 담뱃불로 지겼거나 망치 등의 연장을 사용하는 경우도 김정옥(1987)의 연구(5%)에서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폭력행위의 심각성이 더 높아짐을 알 수 있다. 1년 간 폭력발생 빈도는 무응답을 제외하면 년 1회에서 11회가 31.9%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폭력으로 인한 상처는 멍이 들거나 두통이 심한 경우가 41.5%로 가장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폭력을 당하였을 경우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49.3%를 차지하였다. 이는 아직까지도 피해여성들이 가정폭력행위를 사적인 치부로 생각하고 있으며, 밖으로 드러내기를 꺼리는 경

Table 2. The types and conditions of family violence

가정폭력 상황	구 분	전체 (N=207명)	가정폭력 상황		구 分	전체 (N=207명)
			경찰의 도움요청	무응답		
가정 폭력 기간	0~2년	23(11.1%)	있다			119(57.5%)
	3~5년	27(13.0%)	없다			50(24.1%)
	6~10년	34(16.4%)	도움요청	무응답		38(18.4%)
	10~15년	21(10.2%)	성장과정	있다		120(58.0%)
	16년 이상	16(7.7%)	동안	없다		49(23.6%)
	무응답	86(41.6%)	학대 경험	무응답		38(18.4%)
주된 폭력 행위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행위	43(20.6%)	진단서발급하지 않음			102(49.3%)
	신체을 잡거나 손으로 때리는 행위	43(20.6%)	진단서 발급	1주~3주 미만		41(19.8%)
	빌로 차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	61(29.8%)		4주~12주 미만		24(11.6%)
	흉기로 위협하고 휘두르는 행위	36(17.4%)		12주 이상		18(8.7%)
	기타	24(11.6%)		무응답		22(10.6%)
1년간 폭력발생 빈도	첫구타	23(11.1%)				
	년 1회~11회 정도	66(31.9%)	폭력에	상담이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다		117(56.6%)
	월 1회~3회 정도	32(15.5%)	관한	상담이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		57(27.5%)
	주 1회~5회 정도	20(9.7%)	상담이나 지원여부	무응답		33(15.9%)
	주 6회 이상 또는 거의 매일	6(2.9%)				
	무응답	60(28.9%)				
폭력으로 인한 상처	명이 들거나 두통이 심함	86(41.5%)		남편의 구타행위만 고쳐지길 바람	10(4.8%)	
	치아나 뼈가 부러지는 것	19(9.2%)	앞으로의 계획	부부가 함께 상담받기를 희망함	22(10.6%)	
	칼에 베이거나 찔린 상처	42(20.3%)		일시적인 별거를 원함	12(5.8%)	
	아이가 유산되는 것	11(5.3%)		이혼을 원함	70(33.8%)	
	무응답	49(23.7%)		남편의 법적인 처벌을 원함	17(8.2%)	
				계획을 세우지 못함	20(9.7%)	
				기타	56(27.1%)	

향이 높음을 알 수 있었고,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음으로 이 후에 후회하는 경우도 많음을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4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20%를 넘는 것으로 보아 폭력행위의 잔인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 또 폭력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에 호소하는가를 살펴보았을 때 57.5%가 경찰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이는 가정폭력 특례법이 공포되어 실행되므로 인해 더욱 더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여성 1366 긴급상담전화 활용이 확대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장과정 동안의 학대의 경험으로 58.0%가 어린 시절에 언어적이나 혹은 육체적인 학대를 경험하였으며, 이는 폭력의 연속성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가정폭력을 당했을 경우 상담이나 다른 단체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56.6%의 여성의 도움을 받아 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아직도 가정폭력 시설에 관한 범사회적인 홍보가 미흡함을 보여 주었다. 가정폭력

을 당한 이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33.8%의 여성이 이혼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부부가 함께 상담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10.6%로 나타났다. 즉 폭력을 심하게 당하면서 고통받고 사는 것보다 이혼하여 자립하고자 하는 욕구를 엿볼 수 있었다.

2. 자아분화, 가정폭력 정도 및 특성불안의 일반적 경향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아분화의 전체적인 수준은 2.78을 나타내었으며, 하위영역별로 보았을 경우 가족투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도시 중산층 가정주부들의 자아분화에 관련된 다른 연구논문(최주희 1999)보다는 낮게 나타났으며, 또 다른 연구(한미향, 조영경 1999)보다는 조금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평균에 가까웠으며 이는 금온순(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가정폭력의 정도는 언어

적 폭력이 2.06이고 신체적 폭력이 .87으로 나타났다. 언어적 폭력에 있어서는 다른 연구결과(김명희 2002)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며, 신체적 폭력에 있어서도 김명희의 신체적 폭력의 정도(.71)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성불안의 정도는 전체가 2.49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연구논문(고인숙 1998)과 비교하여 비슷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Table 3. The general level of Self-differentiation, Family violence, Trait-anxiety

N=207		
변인		M(SD)
자아 분화	인지적 기능대	2.86(.49)
	지적 기능	
	자아통합	2.53(.42)
	가족투사	3.03(.50)
	정서적 단절	2.64(.57)
	가족퇴행	2.75(.43)
전체		2.78(.31)
가정폭력 정도	언어적 폭력	2.06(1.09)
	신체적 폭력	.87(.83)
	전체	1.44(.88)
특성불안	전체	2.49(.33)

3. 사회환경 변인에 따른 자아분화 가정폭력 정도, 특성불안의 차이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환경변인에 따른 자아분화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부인학력($p<.05$), 남편학력($p<.001$), 거주형태($p<.05$), 월평균소득($p<.001$), 부인직업($p<.001$), 남편직업($p<.001$)으로 나타났다. 즉 안정된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고, 부부의 학력이 높고, 경제적 수준이 높고 안정된 직업을 가질수록 자아분화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영경(199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며 노숙자의 자아분화를 연구한 이정숙(2001)의 연구결과에서도 교육수준이 높고 안정된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자아분화수준이 높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 금온순(1996)의 연구에서도 소득수준이 높은 가정일수록 자아분화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폭력정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 변수는 부인학력($p<.001$), 남편학력($p<.001$), 거주형태($p<.05$), 월평균소득($p<.001$), 부인직업($p<.001$), 남편직업($p<.001$)으로 나타났다.

폭력의 경향성 역시 생활수준이 낮고 부부 모두 학력과 직업이 불안정할수록 가정폭력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이 안정되지 못하고 생활수준이 낮음으로 인한 불만과 열등감을 폭력행위로 투사한 것으로 사료된다. 특성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남편학력($p<.05$), 월평균소득($p<.001$), 부인직업($p<.01$), 남편직업($p<.01$)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학력이 낮고 부부 모두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며 저소득 계층일수록 불안의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런 결과는 이정숙(2001)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4. 개인적인 특성, 자아분화 수준, 가정폭력 정도가 특성불안에 미치는 영향력

특성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들 변인들간의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회귀분석에 포함된 각 변인들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표 5>와 같이 상관관계를 실시하였다. v 값이 .70을 넘는 변인이 거의 없어 회귀분석을 실시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회귀분석 결과 Dubin-Watson계수가 1.92로 자상판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특성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에 대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특성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부인의 직업($\beta=-.136$),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beta=-.276$), 가족투사($\beta=-.192$), 언어적 폭력($\beta=.304$)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인들이 특성불안을 변량 48%정도 설명해 주고 있다. 즉 부인의 직업이 불안정하고, 노무직이하의 하류계층일수록, 이성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과 가족퇴행이 낮을수록, 언어적 폭력이 높을수록 특성불안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보면 특성불안은 심리적인 요인과 가정환경 및 기타 사회적인 배경 등에 많은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고 그 중에서도 자아분화가 많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즉 분화수준이 낮은 사람이 사고와 정서가 잘 분리되지 못하고 원가족으로부터 개체화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태고난 기질적인 특성불안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경우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가족갈등을 항상 내재하고 있으며 부부갈등의 소지가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금온순(1996)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며, 자아분화 수준이 높고,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집단이 역기능적인 행동인 폭력행위 등을 적게 사용하고, 자아분화수준이 낮고 스트레스를 받는 강도가 높은 집단이 역기능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전춘애 1994; 고현선 1994; 제석봉 1989)와도 일치한다. 자아분화 정도가 낮을수록 결혼생활에서 갈등 및 역기

능적인 행동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언어적인 폭력이 높을수록 특성불안에 많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는데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특성불안 정도를 낮추고 좀 더 심리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는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을 보호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단체 등 연관된 기관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폭력의 악순환을 벗어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Table 4. The degree of Self-differentiation, Family violence, Trait-anxiety by social environmental variable.

N = 207

		자아분화				가정폭력정도				특성불안			
		N	M	SD	F	N	M	SD	F	N	M	SD	F
부인 연령대	20대	13	2.64	.29		11	1.36	1.02		12	2.53	.28	
	30대	92	2.75	.32	2.13	91	1.34	.91	.94	93	2.46	.33	.88
	40대	64	2.84	.31		58	1.55	.83		69	2.51	.36	
	50대이상	19	2.78	.29		21	1.59	.84		18	2.58	.23	
남편 연령대	20대	2	2.42	.39		1	1.66	.		2	2.63	.25	
	30대	56	2.76	.27	1.09	53	1.25	.91	1.23	56	2.49	.28	.27
	40대	99	2.79	.33		94	1.53	.89		101	2.48	.36	
	50대이상	31	2.81	.32		33	1.46	.81		33	2.53	.34	
부인 학력	중졸이하	39	2.67	.39		41	1.93	.77		39	2.57	.35	
	고졸	101	2.78	.28	4.22*	93	1.38	.90	10.82***	105	2.48	.33	1.38
	전문대졸이상	48	2.86	.29		47	1.10	.75		48	2.45	.32	
남편 학력	중졸이하	35	2.60	.35		34	2.19	.75		33	2.69	.28	
	고졸	87	2.80	.33	7.41***	84	1.39	.87	21.51***	89	2.48	.30	7.93***
	전문대졸이상	66	2.84	.24		62	1.08	.72		69	2.43	.34	
거주 형태	자가	99	2.82	.29		96	1.38	.90		104	2.48	.37	
	전세	61	2.76	.33	3.41*	54	1.28	.79	3.74*	56	2.46	.29	1.39
	월세	14	2.54	.37		16	1.95	.85		16	2.65	.27	
	기타(더부살이 등)	12	2.78	.24		12	1.90	.88		14	2.52	.25	
결혼 상태	초혼	168	2.78	.32		161	1.40	.90		170	2.48	.34	
	재혼	16	2.74	.24	.10	15	1.79	.66	2.11	17	2.60	.22	.95
	기타(사실혼, 별거 등)	4	2.81	.18		4	1.50	1.03		5	2.46	.18	
월평균 소득	100만원이하	46	2.68	.32		44	2.01	.74		45	2.60	.32	
	101~200만원	91	2.75	.30	9.03***	92	1.37	.88	18.04***	99	2.51	.29	7.33***
	201만원 이상	51	2.92	.27		45	1.00	.73		48	2.35	.38	
부인 직업	전업주부	107	2.79	.29		101	1.24	.88		110	2.49	.35	
	농업, 단순노무직 등	36	2.65	.34	5.60***	35	2.02	.70	9.67***	36	2.65	.25	4.30**
	자영업	18	2.73	.33		19	1.86	.86		19	2.44	.31	
	전문직	13	3.04	.28		13c	1.19	.55		14	2.32	.32	
남편 직업	무직	45	2.86	.24		45	1.54	.81		51	2.54	.35	
	농업, 단순노무직 등	42	2.60	.34	8.52***	40	1.88	.95	8.40***	39	2.64	.26	4.99**
	자영업,	43	2.73	.32		43	1.45	.85		45	2.45	.34	
	전문직	50	2.87	.27		46	.99	.71		49	2.39	.32	

*p<.05 **p<.01 ***p<.001

* 무응답은 missing value로 처리하여 사례수에 다소 차이가 있음.

Table 5. The correlation of personal-trait, Self-differentiation, Family violence, Trait-anxiety.

	1	2	3	4	5	6	7	8	9	10	11
1. 부인의 학력	1.00										
2. 부인의 직업	.051	1.00									
3. 월평균 소득	-.160*	.148*	1.00								
4.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045	.145*	.017	1.00							
5. 자아통합	.168*	.014	.003	.119	1.00						
6. 가족투사	.118	.097	.241**	.470**	.080	1.00					
7. 정서적 단절	.102	-.017	.031	.310**	.193**	.412**	1.00				
8. 가족퇴행	.139	.065	.122	.379**	.203**	.422**	.527**	1.00			
9. 언어적 폭력정도	-.171*	.093	-.354**	-.291**	-.300**	-.180*	-.302**	-.207**	1.00		
10. 신체적 폭력정도	-.206**	.037	-.336**	-.225**	-.294**	-.177*	-.228**	-.340**	.700**	1.00	
11. 특성불안	-.069	-.158	-.177*	-.532**	-.181**	-.402**	-.250**	-.281**	.469**	.420**	1.00

*p<.05 **p<.01

Table 6. The regression of Trait-anxiety by the personal-trait, Self-differentiation, Family violence, Trait-anxiety

변인	B	β
부인의 학력 ¹⁾	-5.7E-03	-.008
부인의 직업 ²⁾	-.112	-.135*
월평균소득 ³⁾	-2.2E-02	-.029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190	-.284***
자아통합	1.19E-02	.015
가족투사	-.124	-.189*
정서적 단절	1.59E-02	.027
가족퇴행	1.02E-03	.013
언어적 폭력	1.31E-02	.304**
신체적 폭력	7.50E-03	.154
F	12.901***	
R ²	.48	

*p<.05 **p<.01 ***p<.001

- 1) 전문대졸 이상을 1, 고졸 이하를 0으로 가변수 처리
- 2) 자영업 이상을 1, 단순노무직 이하를 0으로 가변수 처리
- 3) 101만원 이상을 1, 100이하를 0으로 가변수 처리

V. 논의 및 결론

급변하는 도시가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가정주부의 심리적인 상태를 알아보고 이를 위협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일은 현대 도시가정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도시가정주부의 자아분화, 특성불안 및 가정폭력정도를 알아보고 개인적인 특성

과 자아분화, 가정폭력 정도가 특성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여 도시 가정주부의 심리적인 안녕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른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아분화의 전체적인 수준은 2.78을 나타내었으며, 하위영역별로 보았을 경우 가족투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도시 중산층 가정주부들의 자아분화에 관련된 다른 연구논문(최주희: 2.99)과는 낮게 나타났으며, 또 다른 연구(조영경 1999)보다는 조금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평균에 가까웠으며 이는 금은순(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가정폭력의 정도는 언어적 폭력이 14.46이고 신체적 폭력이 6.93으로 나타났다. 특성불안의 정도는 전체가 2.49로 나타났다.

둘째,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자아분화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인으로는 부부의 학력이 높고, 경제적 수준이 높고, 자가를 소유하며 안정된 직업을 가질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영경(199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며 노숙자의 자아분화를 연구한 이정숙(2001)의 연구결과에서도 교육수준이 높고 안정된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문화수준이 높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폭력정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 변수는 생활수준이 낮고 거주 형태가 불안정하며 부부 모두 학력과 직업이 불

안정할수록 가정폭력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이 안정되지 못하고 생활수준이 낮음으로 인한 불만과 열등감을 폭력행위로 투사함을 알 수 있다. 특성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남편의 학력이 낮고 부부 모두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며 저소득 계층일수록 불안의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는데 생활이 불안정할수록 특성불안이 높아짐을 의미하며, 이런 결과는 이정숙(2001)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셋째, 특성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들 변인들간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인의 직업,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가족투사, 언어적 폭력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인의 직업이 불안정하고, 노무직이하의 하류계층일수록, 이성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과 가족퇴행이 낮을수록, 언어적 폭력이 높을수록 특성불안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보면 특성불안은 심리적인 요인과 가정환경 및 기타 사회적인 배경 등에 많은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고 그 중에서도 자아분화가 많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즉 분화수준이 낮은 사람이 사고와 정서가 잘 분리되지 못하고 원가족으로부터 개체화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타고난 기질적인 특성불안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경우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가족갈등을 항상 내재하고 있으며 부부갈등의 소지가 되며 불안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금온순(1996)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며, 자아분화 수준이 높고,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집단이 역기능적인 행동인 폭력행위 등을 적게 사용하고, 자아분화수준이 낮고 스트레스를 받는 강도가 높은 집단이 역기능적인 행동을 많이 하며 불안수준이 높다는 연구 결과(전춘애, 1994 ; 고현선, 1994 ; 제석봉, 1989) 와도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언어적인 폭력이 높을수록 특성불안에 많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심리적인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들의 삶의 적응을 돋고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가정폭력을 감소시키는데서 시작하

였으나 가정폭력의 심리적인 변인에 관한 연구가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었고 이런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줄 만한 논의가 부족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가정폭력의 악순환을 설명하는데 좋은 계기되었다고 사료되며 이를 바탕으로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심리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자아분화수준을 높이고 특성불안 정도를 낮추어서 좀 더 심리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을 보호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단체 등 연관된 기관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은숙(1998). 부모의 특성불안과 양육태도 및 아동의 문제행동.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고현선(1994). 부부의 자아분화가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금온순(1996). 자아분화 수준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갑숙, 최외선(1992). 아내가 인지한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132-143.
- 김광일(1985). 구타당한 아내 50례의 정신의학적 연구.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부설 정신건강 연구, 제3집, 253-256.
- 김명희(2002). 역기능 가족내 아동의 사회적부적응 행동과 부모아동상담치료요인에 관한 연구. 미국 1세와 1.5세대/2세대 한인교민 가정의 부모·자녀관계 특성을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12(1), 45-73.
- 김정숙(1986). 가정내의 폭력에 관한 이론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정택(1978). 특성불안과 사회성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김정택, 심혜숙(1992). Murray Bowen의 정신역동적 가족치료 모델, 인간서강 13. 서강대 학생생활연구소, 33-61.
- 김정택, 심혜숙(1993). 자아분화개념을 통한 Bowen의 정신역동적 가족치료의 특징. 한국가족치료학회지 창간호, 31-35.
- 백양희(1998). 부모-자녀 유대관계가 농촌고등학교들의 자아분화, 특성불안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영남대 대학원.
- 보건복지부(1998). 가정폭력 실태 현황파악. 보건사회연구, 1권 1호.
- 손연주(1997). 구타당하는 아내들의 심리적 특성 연

- 구 : Satir 가족치료모델의 의사소통유형과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 교육대학원.
- 이영숙(1986). 한국 도시가족 부부간의 지위관계와 부인학대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이창만(1992). 자아분화수준에 따른 부부갈등과 부부적응. 석사 학위논문, 고려대 교육대학원.
- 이현주(1998). 부부의 자아분화의 정도와 갈등대처 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전춘애(1994). 부부의 자아분화수준과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 지각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대.
- 정미란(1994). 청소년의 발달시기에 따른 자아분화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 교육대학원.
- 정영해(1998). 통계강의 및 자료분석, 광주: 성민사.
- 제석봉(1989).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 :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부산대 대학원.
- 조민선(1999). 가정폭력의 개념과 기본유형에 관한 연구 : 유형별 가정폭력의 종합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국민대 행정대학원.
- 조영경(1999). 어머니와 자녀의 자아분화 수준 및 신경증적 경향성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울산대 학교 교육대학원.
- 최규련(1995).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과 부부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가정 관리학회지 33(6), 140-152
- 최미영(1996). 아내학대의 원인과 실태 및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최주희(1999). 가정에서 뇌·척수손상환자를 돌보는 주 가족원의 역할스트레스와 건강상태와 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 한미향(1999). 부부의 자아분화와 부부갈등 및 갈등 대처방안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 Bowen DS and Becvar RJ(1988). Family therapy. Boston: Allyn & Bacon, Inc.
- Bowen M(1976).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I. J. Guerin(ed.), Family therapy and practice, New York: Gardner Press.
- Bowen M(1978). Theor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son Aronson.
- Bowen M(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 Jason, Aronson.
- Bowen M(1960). A family concept of schizophrenia, In D. D. Jackson(Ed), The etiology of schizophrenia: An integrated approach, New York: Ronald Press.
- Burgess EW and Cottrel LS Jr(1939), Predicting success of failure in marriage, New Jersey: Prentice-Hall.
- Feigel TJ(1985).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iation of self and marital adjust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 Gells RJ(1972). The Violent Home : A study of physical aggression between husbands and wives. California Sage.
- Gells RJ and Straus M(1979). Determinants of violence in family : towards a theoretical integration. IN : W. Burr, R. Hill, F. I. Nye and I. Russ(1971),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Vol. 1), New York : the free Press.
- Green A(1985). Child abuseand neglect. IN : the clinicalguide to child psychiatry, edited by Shaffer, D. New York : Free Press.
- Hoffman JA(1987). Family dynamics and presenting problem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 259-166.
- Kauffman AS(1980). Issues in psychological assessment. Advances in Clinical child Psychology, 3, New York: Plenum
- Kear J(1978). Marital satisfaction and attraction as a function of differentiation of self.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 Lazarus RS(1976). Psychological stress and the coping process, New York : McCrow-hill.
- Nelson TS(1987). Differentiation : An investigation of Bowen theory with clinical couples, The Univ. of Iowa, Ph. D, Dissertation Abstracts.
- Spielberger CD(1972). Anxiety as an Emotional State, in Spielberger(Ed), Anxiety; Current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 Academic Press. 39.
- Spielberger CD(1966). The effects of manifest anxiety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college students. Mental Hygiene 46, 420-426.
- Spielberger CD(1966). The effects of anxiety of complex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New York: Academic Press, 361-398.
- Straus MA(1976). Measuring Intra family Conflict and Violence : The conflict Tactics Scale. J Marriage & Family Relations 2, 75-87.
- Warner CG and Brain GR(1982). Management of the physically and mentally abused : emergency assessment intervention and counseling. Norwalk : Appleton-Century Crops In.